ISSN 1225-0740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40, No.1(2024)
https://doi.org/10.22669/krsa.2024.40.1.069 한국지역학회지 『지역연구』 제40권 제1호 pp.69-88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인화** · 전희정***

Local Environmental Factors on Stres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Young and Senior Single-Person Households-*

JIN YINHUA** · Jun, Hee-Jung***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역환경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지역환경을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주로 물리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인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연령별 특성과 고려한 지역수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스트레스, 청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environmental factors on stress among young and senior single-person households. We analyzed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greater differences in stress factors between young single-and multi-person households than senior single-and multi-person households; Second, stress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as mainly influenced by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while stress among senior single-person households was influenced by both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s suggest that customized support at the local level is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age-specific characteristics and stress vulnerabilities when promoting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Key Words: Stress, young single-person, senior single-person, physical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3R1A2C1004474).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현재 한국에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유형이다. 2010년 기점으로 전체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해 왔으며, 2021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로 집계되었다(코시스, 2022). 즉,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중가 추세 속에 1인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혼자 생활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명진 외, 2014; 강은나·이민홍, 2016). 또한 1인가구는 주거안정의 어려움, 빈곤, 위험에 대한 노출 및 위급상황에 처할 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변미리 외, 2008; 김은경·박숙경, 2016; 심종섭·박문수, 2021).

한국의 1인가구는 청년층이 가장 많고,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 1인가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성인지통계, 2022). 청년과 노년 1인가구는 중장년 1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적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빈약하며 자살,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신건강 취약층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소영, 2022; 신서우·민소영, 2023). 청년층은 사회초년생의 비율이 많으며 고용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집단이다.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는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이동을 수반하면서 주거빈곤 및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겪게 된다. 노년층은 은퇴 이후 생활반경과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하면서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배우자를 상실한 노년 1인가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동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역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별 1인가구 집단 내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보다 취약한 집단일 뿐 아니라 이 두 집단 간의 생활형태, 가구형성원인 등에 있어 차별성이 존재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건강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취약층으로 지목되고 있는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형태가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1인가구의 주거, 사회적 관계, 건강수준 등 취약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이 정신건강과의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박미선, 2017; 정유승, 2018; 채미선·이정화, 2018) 청소년, 여성, 노년 등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김은경·박숙경, 2016; 김아린, 2018; 김지선, 2020; 장임숙, 2020). 따라서 지역 특성과 연령별 이질성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며(정경희 외, 2012; 권혁철·김형용, 2017; 박미선, 2017) 서로 다른 생활형태, 형성원인 등 차별성을 지닌 1인가구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정부에서도 1인 가구의 삶의 질 제고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을 포함한 주거공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연령대별로 개인적, 사회적 이질성을 갖고 있는 1인 가구의 집단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보급과 정책 지원이 부족한 현황이다(김재익, 2013). 이미 정신건강과 환경간의 관련성이 입증된 가운데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은 더이상 개인수준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환경요인을 중심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청년과 노년 간, 나아가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간 정신건강의 중요한 측면인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미

치는 환경요인의 차이는 청년층과 노년층 간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질문 2: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탐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차이검정을 통해 본 집단 간 차이를 토대로 스트레스 위험에 따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주는 지역환경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및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압력이 발생하였을 때, 유기체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겪게 되는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스의 증가는 흡연, 과음, 범죄 등 행위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김현, 2000). 개인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지적기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주면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며(고경봉 외, 2000)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대인관계 문제, 생산성 문제 등을 일으키기에 스트레스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

스트레스는 개인 특성 외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Lederbogen et al., 2011; 김정호 외, 2013), 이러한 외부환경은 지역수준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안전, 교통, 공공시설 등을 가리키며 사회적 환경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 타인, 이웃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문하외, 2018; Jin & Jun, 2021). 따라서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지역환경과 연관하여 합리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녹지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건강증진 활동의 공간과 쾌적한 장소로서의 공원녹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복지시설로서 정서적 행복감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호 외, 2013). 이에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 불안을 억제하여 안녕감이 높아지게 된다(이승훈·현명호, 2003). 의료서비스는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료서비스의 격차는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의료기관수가 적을수록 자살위험은 증가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한창수 외, 2012; 김진현, 2021). 또한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일상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면서 스트레스에 작용하게 된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통근통행의 부담을 줄이고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 하여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으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고 이용환경이 혼잡할 경우에는 통행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통행시간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이재영·박진희, 2015). 이에 일상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과 이용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은 통행과 이동의 스트레스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은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에 대한 노출을 감소할 수 있다(하정화 외, 2014; 한은경·이유미, 2014). 안전한 물리적 환경은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적 안녕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도 증진효과가 있지만(이지은 외, 2014; 김갑열·김윤옥, 2017), 무질

서하고 혼잡한 물리적 환경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형성하여 주거불안, 우울감을 가중시키게 된다(강희경 외 2009).

보편적으로 사회적 환경을 지칭하는 지표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과의 관계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원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손용진, 2010; 최예나·김이수, 2015).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지인과 인식의 제도화된 관계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자원의 집합체라 하였고(Bourdieu, 1985), 콜맨은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과 달리 무형의 인적 자본이며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다 하였다(Coleman, 1988).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13; 이영균·최승인, 2016; 유민 외, 2019; Jin & Jun, 2021). 한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개인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서인균, 2014).

한편으로 개인차원의 연령, 성별, 소득, 학력, 가족형태와 같은 특성도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대별로 인지하는 스트레스 영향요인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애리 외, 2010; 두미애, 2015).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불충분한 수면시간, 우울, 자살생각 및 정신문제 상담을 하는 비중이 높고 스트레스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신미아, 2019; 김영숙, 2020), 이러한 차이는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형성된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 주거 및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지영·전희정, 2021; 송나경, 2020; 신미아, 2021).

2)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1)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청년층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문제, 고용불안과 함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황명주·장용언, 2017). 2023 년 2 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7%, 고용률은 45.5%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비정규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23). 한편,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과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도 한층 증가하였고 경쟁률과 이력을 쌓기 위한 취업 준비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일요서울, 2023). 이러한 고용과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주거빈곤을 야기하게 된다(이순미, 2018). 이에 청년 1인가구는 기타 가구형태의 청년에 비해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월세로 살면서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에 안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과 같은 안전이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Lee & Suh, 2016; 정은희·송나경, 2017). 또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소영, 2022), 이는 쾌적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의 구성과 새로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핍한 원인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은 스트레스에 있어 다인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에 비해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은 각종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노년층은 신체의 노화와 함께 은퇴시기를 맞아 생활패턴의 변화, 소득 감소 등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선 노년층은 신체와 생리적 기

능의 쇠퇴로 쉽게 질병에 걸리기에 건강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서수균 외, 2012). 또한 은퇴 이후 경제력 저하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서경현, 2007). 노년층은 경제상태가 취약할수록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나며(이평숙 외, 2004) 퇴직 이후의 무능력감은 심리적인 위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서경현, 2006). 노년 1인가구는 일반적인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기능의 저하, 사회경제적 지위의 약화 및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는 동시에 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년 1인가구는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심한 우울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자본의 부재는 노년 1인가구의 고립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면서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Van Orden & Conwell, 2011; 조은현·이동형, 2016; 권혁철·김형용, 2017). 때문에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노년 1인가구에게 사회적 자본은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지지와 이웃과의 교류수준이 높을수록 노년 1인가구의 행복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김가원·황혜신, 2021), 이러한 영향력은 1인가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난다(손희주·남궁미, 2018; 송나경, 2020). 한편, 신체기능의 저하로 이동의 제한을 받는 노년가구는 활동범위의 축소로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Glass & Balfour, 2003). 따라서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은 부정정서를 경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면서 노년 1인가구의 긍정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년 1인가구는 청년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큼으로 인해 안전, 생활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독립을 하면서 수반되는 주거이동은 주거비 부담과 함께 거주형태와 쾌적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소외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노년 1인가구는 노년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형성원인의 특성으로 인해 주거이동이 수반되는 경우보다는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역할이 커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차이가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클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를 비교해 볼 때, 주거환경의 도시녹지 이용 접근성, 이웃관계와 같은 물리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요인이지만 청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자연환경,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과 같은 주택 외부의 물리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김병석, 2019; 박진호 외, 2021; 김단야, 2023) 노년 1인가구는 거주지 점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한민경, 2018). 또한, 노년 1인가구는 신체적, 사회적 기능 등 방면에서 더 많은 상실감을 겪게 되므로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 영향요인에는 차이가 존재 할 뿐만 아니라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청년 1인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가설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외부의 환경요인이 건강과의 상호관계를 입증하면서(Corburn, 2004; Kennedy & Adolphs, 2011; Lederbogen et al., 2011)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행복 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현욱·박경민, 2012; 최희영 외, 2020; 임은정, 2021).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진영(2018)은 동네의 운동환경, 공공시설 접근성, 이웃과의 상호관심정도, 도움의향이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고 문하늬 외(2018)는 물리적 환경의 치안, 재해, 오염, 쓰레기 혼잡, 자연환경과 편의시설 등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장소라(2022)는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의 사회활동 참여, 지인과의 접촉 빈도와 물리적 환경의

지역 안전,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자연 및 생활환경 등 환경요인이 노인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1인가구 집단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특성, 다인가구와의 비교 또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1인가구 여성은 경제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우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 남성은 60대, 초졸 이하, 기혼,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 경제상태가 취약하고 주관적건강 상태가 나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는 경우 자살 생각이 높았다(신마아, 2020). 또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정혜은, 2019), 노년층에서는 행복감에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환경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노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가원·황혜신, 2021).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1인가구에 관한 탐구는 주로 연령별 형성원인, 공간분포 등 이질성(변미리, 2015; 신상영, 2010)을 다루고 있거나 소득, 고용, 주거취약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강은아·이민홍, 2016; 김옥연·문영기, 2009; 정서연·남궁미, 2019). 이러한 연구들의 확장을 위하여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정신건강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인간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지역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게 됨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인가구의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개인 특성 외에도 지역사회 환경적 차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인가구의 정신건강을 살펴봄에 있어 주로 다인가구와의 비교 또는 특정 집단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1인가구는 보편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실증되었으며(김은경·박숙경, 2011; 김아린, 2018; 신미아, 2019; 이하나·조영태, 2019; 김지선, 2020; 장임숙, 2020) 1인가구는 연령별로 형성원인과 생활 특성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강은택 외, 2016; 장임숙, 2020; 황경란 외, 2022). 따라서 앞에 논의한 개인수준과 지역특성 뿐만 아니라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것은 1인가구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 주요 구성요소인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지역차원의 환경적 접근에서 청년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 노년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 영향요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청년과 노년 1인가구 집단은 주요하게 어떤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차이는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 간의 차이보다 크다.

가설 2: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

3.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변수설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2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조사는 보건의료계획 수

립 및 평가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모집단은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55개 보건소에서 평균 900명씩 추출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내용은 개인조사와 가구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조사는 표본가구당 만 19세 이상의 성인 1인에게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가구원 모두에게 조사한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은 21개 영역의 2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인구학적 사항을 포함하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사회적·물리적 환경, 활동 및 삶의 질 등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에 신뢰성을 갖춘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정유진·이세규, 2015; 이동성 외, 2019; 정현·전희정, 2019).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는 19세 이상 성인 229,099 명의 응답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활용 된 유효 표본수는 203,390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명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1인가구로, 기타 가구는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1인가구 33,353명과 다인가구 170,037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이 19~34세인 가구를 청년가구로, 65세 이상은 노년가구로 구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년 1인가구 3,057명, 청년 다인가구 25,820명, 노년 1인가구 18,182명, 노년 다인가구 50,897명이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황종남·오종목, 2020; 김진현, 2021; 변금선, 2021).

세부적인 측정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종속변수는 정신건강 측정지표인 스트레스를 사용하였으며, 본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으로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에 대한 ①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많이 느끼는 편이다, ③조금 느끼는 편이다, ④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스트레스 위험 정도에 따라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위험군(1)으로,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정상군(0)으로 정의하였다(Choi & Yun, 2004; 안지연·이성은, 2014).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으로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개인 특성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조미정·이명훈, 2015; 한수정·전희정, 2018; 전준형·박진아, 2020). 우선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문항은 구체적으로 동네의 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사고,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 여부, 공기질, 수질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 여부와 보건소,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 여부(0=아니오, 1=예)의 더미변수를 통해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만족하는 경우는 1,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환경요인의 측정은 사회적 연결망, 지지, 규범 등을 지칭하는 지표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를 통해 측정하였다(박수진·나주몽, 2015; 이경영, 2019; Ferlander, 2007). 구체적으로 신뢰는 동네 사람들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호혜성은 동네 사람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지 여부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0, '예"라 응답한 경우를 1로 설정하였다. 네트워크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이웃과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하는지에 대한 ①한달에 1번 미만, ②한달에 1번, ③한달에 2~3번, ④일주일에 1번, ⑤일주일에 2~3번, ⑥일주일에 4번 이상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 특성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력, 나이, 가구 월평균소득, 직업유무 및 수도권 거주여부을 투입하였다(김진영, 2018; 문하늬 외, 2018; 장소라, 2022). 성별은 여성인 경우 0, 남성인 경우를 1 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최종 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고졸 미만인 경우 0, 고졸 이상인 경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항목	비고
종속변수	스트레스	평소 일상생활 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정상군=0, 위험군=1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동네 전반적인 안전수준 만족 여부	아니오=0, 예=1
	자연환경 만족도	동네 자연환경의 만족 여부	
	대중교통 만족도	동네 대중교통 여건의 만족 여부	
	의료서비스 만족도	동네 의료서비스 여건의 만족 여부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동네 사람들에 대한 신뢰 여부	
	호혜성 여부	동네 사람들이 경조사 때 도움을 주고받는지 여부	
	네트워크 빈도	이웃과의 연락정도	6점 리커트 척도
개인 특성	남자	응답자 성별	여자=0, 남자=1
	학력	응답자 학력	고졸 미만=0, 고졸 이상=1
	소득수준	응답자 가구 월평균 소득	5점 리커트 척도
	직업 있음	응답자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직업무=0, 직업유=1
	수도권 거주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지 여부	비수도권:0, 수도권=1
	나이	응답자의 나이	연속형 변수

우 1 로 더미화하였으며, 나이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소득수준은 평균 가구 월소득을 측정하여 ① 100만원 미만, ②100만원~200만원 미만, ③200만원~300만원 미만, ④300만원~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이상의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우를 1, 직업이 없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고 수도권 거주여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경우는(약 30%) 1,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약 70%) 0으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의 흐름을 따른다. 먼저 전체 표본을 다인가구와 1인가구로 구분한 뒤, 두 집단을 연령에 따라 청년과 노년 가구로 구분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대상의 집단 별 표본 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간,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 간의 스트레스 위험과 관련요인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연령대별 스트레스 취약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간 스트레스 위험 및 관련요인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간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비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차이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집단이나 그 이상일 때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분류될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의 확률적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0, 1 과 같이 두 개의 값을 가지는 범주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그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즉 Exp(B)값을 통해 해석되는데, 오즈비는 종속변수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통계량으로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오즈비(Odds Ratio)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스트레스 위험군과 스트레스 정상군의 이분형으로 나타나며, 각 집단의 스트레스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

〈표 2〉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 및 관련요인 차이

구분	변수	청년 1인가구		청년 다인가구		차이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x^2/t
종속변수	스트레스	0.33	0.469	0.28	0.449	28.745***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71	0.454	0.77	0.419	63.603***
	자연환경 만족도	0.70	0.457	0.76	0.426	51.191***
	대중교통 만족도	0.69	0.461	0.68	0.466	2.254
	의료서비스 만족도	0.70	0.458	0.70	0.457	0.088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36	0.481	0.51	0.500	223.215***
	호혜성 여부	0.13	0.340	0.25	0.436	221.215***
	네트워크 빈도	1.98	1.715	2.20	1.771	6.785***
개인 특성	남자	0.56	0.496	0.47	0.499	97.520***
	학력	0.83	0.378	0.81	0.395	6.641***
	소득수준	2.87	1.148	4.35	1.017	68.257
	직업 있음	0.78	0.414	0.60	0.490	371.436***
	수도권 거주	0.40	0.490	0.43	0.495	11.198***
	나이	27.26	4.162	26.63	4.645	−7.910

*p<0.1, **p<0.05, ***p<0.01

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4. 분석 결과

1)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비교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 위험과 관련요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34세의 청년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t 검정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위험에 대한 차이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과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0.33)이 전반적으로 청년 다인가구(0.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의 경우 청년 1인가구가 안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청년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으로 청년 1인가구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과 자연환경수준이 높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청년 1인가구는 신뢰 여부, 호혜성 여부, 네트워크 빈도 모두에서 청년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환경 수준 또한 청년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특성의 성별, 학력, 직업과 수도권 거주 여부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는 청년 다인가구에 비해 남성인 가구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가 더 많았다. 직업, 수도권 거주와 나이 변수도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가적으로 청년 1인가구에서 직업이 있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청년 1인가구 및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구분	변수	청년 1인가구			청년 다인가구		
		B	S.E.	Exp(B)	B	S.E.	Exp(B)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291***	0.096	0.747	−0.281***	0.036	0.755
	자연환경 만족도	−0.249***	0.093	0.780	−0.223***	0.035	0.800
	대중교통 만족도	−0.129	0.096	0.879	−0.174***	0.035	0.951
	의료서비스 만족도	−0.150	0.096	0.861	−0.050	0.036	0.752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113	0.097	0.893	−0.285***	0.033	0.935
	호혜성 여부	−0.101	0.140	0.904	−0.068*	0.039	0.983
	네트워크 빈도	−0.033	0.025	0.968	−0.017*	0.009	0.754
개인 특성	남자	−0.486***	0.080	0.615	−0.283***	0.029	0.848
	학력	−0.097	0.104	0.907	−0.164***	0.036	0.949
	소득수준	0.036	0.042	1.036	−0.052***	0.014	1.276
	직업 있음	0.153	0.110	1.166	0.244***	0.031	1.106
	수도권 거주	0.089	0.083	1.093	0.101***	0.029	1.032
	나이	0.005	0.011	0.638	0.032***	0.003	0.459
Nagelkerke R^2		0.048			0.049		
Hosmer & Lemeshow 검정 x^2		0.409			0.070		
x^2		106.462***			903.263***		
N		3057			25820		

*p<0.1, **p<0.05, ***p<0.01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서 안전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는 안전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747배 낮았고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할 때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780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요인의 안전과 자연환경 만족도는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쾌적하며 접근가능한 자연환경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강지현, 2017; 임은정, 2021; Cohen & Felson, 1989). 한편, 물리적 환경요인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년 1인가구는 통근과 통학을 위해 형성된 가구로 직주근접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교통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수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거를 선택하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변미리, 2015; 김보경, 2017). 이는 신상영(2010)의 연구에서 청년층 1인가구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밀집하는 특성을 갖고있다는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의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만이 스트레스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청년 1인가구에서 남자인 가구가 여자인 가구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카이제곱검정 결과에 의하면, 청년 다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위험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은 1인가구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년 다인가구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에 만족하는 경우 스트레스 위험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환경요인에서는 청년 다인가구가 동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우, 호혜성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서는 청년 다인가구의 남자 응답자가,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같은 경우, 청년 다인가구가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이 있을 때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직중인 청년 다인가구는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기타 부양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의 공통적인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만이 영향을 미친 청년 1인가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2)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노년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위험과 관련 요인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스트레스 위험은 노년 1인가구가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이 높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물리적 환경의 안전, 자연환경,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물리적 환경요인에 관해 노년 1인가구에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년 1인가구가 물리적 환경 수준이 더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경우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는 신뢰 여부와 네트워크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뢰 여부는 노년 1인가구가 노

〈표 4〉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 및 관련요인 차이

구분	변수	노년 1인가구		노년 다인가구		차이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x^2/t
종속변수	스트레스	0.16	0.369	0.17	0.371	2.869*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91	0.289	0.92	0.275	10.690***
	자연환경 만족도	0.89	0.307	0.88	0.323	19.340***
	대중교통 만족도	0.74	0.438	0.77	0.420	74.731***
	의료서비스 만족도	0.76	0.426	0.79	0.410	50.095***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80	0.398	0.82	0.382	25.040***
	호혜성 여부	0.73	0.443	0.73	0.442	0.091
	네트워크 빈도	4.88	1.754	4.61	1.877	−18.646***
개인 특성	남자	0.19	0.392	0.49	0.500	5122.230***
	학력	0.04	0.197	0.25	0.435	265.497***
	소득수준	1.36	0.730	2.61	1.359	154.286***
	직업 있음	0.32	0.466	0.43	0.495	597.417***
	수도권 거주	0.17	0.375	0.24	0.425	355.165***
	나이	76.65	6.715	73.84	6.383	−48.887***

*p<0.1, **p<0.05, ***p<0.01

년 다인가구에 비해 동네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네트워크 빈도는 노년 1인가구가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의 신뢰 여부가 노년 1인가구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이 홀로 생활하는데서 생기는 사고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강은나·이민홍, 2016) 네트워크 빈도가 노년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1인가구 노인들이 다인가구로 생활하는 노인에 비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웃들과의 교류나 사회적 의존도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이민아, 2021).

개인 특성의 모든 요인에서도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년 1인가구에서 남성 응답자가 적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력 및 소득수준의 경우 노년 1인가구가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 낮았다. 노년 1인가구가 직업이 있는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노년 다인가구에 비해서 낮았으며 평균 나이는 노년 다인가구보다 높았다.

다음은 노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년 1인가구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서 안전, 대중교통,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이용과 충족한 의료서비스는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요인임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성,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와 편리한 대중교통이 노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신서우·민소영, 2023).

사회적 환경요인에서는 신뢰 여부와 네트워크 빈도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년 1인가구는 동네 사람들에 대

〈표 5〉 노년 1인가구 및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구분	변수	노년 1인가구			노년 다인가구		
		B	S.E.	Exp(B)	B	S.E.	Exp(B)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330***	0.068	0.719	−0.229***	0.043	0.796
	자연환경 만족도	−0.055	0.066	0.947	−0.134***	0.037	0.875
	대중교통 만족도	−0.172***	0.055	0.842	−0.049	0.034	0.952
	의료서비스 만족도	−0.158***	0.056	0.854	−0.207***	0.035	0.813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329***	0.060	0.720	−0.353***	0.035	0.702
	호혜성 여부	−0.015	0.060	0.985	−0.030	0.035	0.971
	네트워크 빈도	−0.086***	0.013	0.917	−0.054***	0.007	0.947
개인 특성	남자	0.009	0.054	1.009	−0.035	0.024	0.966
	학력	−0.270**	0.118	0.763	−0.404***	0.033	0.668
	소득수준	−0.190***	0.034	0.827	−0.120***	0.010	0.887
	직업 있음	−0.144***	0.047	0.866	−0.045*	0.025	0.956
	수도권 거주	0.014	0.057	1.015	−0.018	0.030	0.983
	나이	−0.007**	0.003	0.993	−0.002	0.002	0.998
Nagelkerke R^2		0.032			0.031		
Hosmer & Lemeshow 검정		0.719			0.462		
x^2		342.505***			939.752***		
N		18182			50897		

*p<0.1, **p<0.05, ***p<0.01

해 신뢰하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720배 낮았고,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971배 낮아졌다. 최성헌(2020)의 연구에서도 도시 거주 노년 1인가구가 이웃을 도와줄 용의가 높을수록, 특히 여성 노년 1인가구는 타인 신뢰와 이웃을 도와줄 용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김가원·황혜신(2021)에서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노년 1인가구의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개인 특성 중에는 노년 1인가구가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다.[1)]

노년 다인가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 자연환경,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다인가구가 안전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796배 낮았고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군일 가능성이 0.875배 낮았으며 의료서비스에 만족할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0.813배 낮았다. 사회적 환경의 경우 노년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을 신뢰를 하는 경우, 네트워크 빈도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또한 노년 다인가구는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요약하자면,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은 물리적 환경요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요인으로부터 공통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앞서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만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고,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차이는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 간의 차이보다 클 것이다”는 가설1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비교

앞선 분석에는 청년 및 노년 가구 각각의 집단 내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에서는 1인 가구에 집단에 집중하여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과 관련요인을 대상으로 t검정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간 스트레스 위험과 그 관련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해당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위험은 청년 1인가구에서 노년 1인가구의 약 2배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 1인가구 집단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관련요인 중 두 집단은 물리적 환경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모든 환경요인의 만족도는 노년 1인가구가 높았으며, 두 집단은 안전 만족도와 자연환경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가 정주하는 지역환경 특성 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신상영, 2010).

사회적 환경 수준에 있어서도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노년 1인가구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즉, 신뢰, 호혜성과 네트워크 빈도가 청년 1인가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에 관하여 청년 1인가구는 남자 응답자가 노년 1인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청년 1인가구에서 노년 1인가구에 비해 높았다. 월 평균 소득수준은 청년 1인가구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청년 1인 가구에서 노년 1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 및 관련요인 차이

구분	변수	청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차이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x^2/t
종속변수	스트레스	0.33	0.469	0.16	0.369	464.077***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71	0.454	0.91	0.289	980.463***
	자연환경 만족도	0.70	0.457	0.89	0.307	828.546***
	대중교통 만족도	0.69	0.461	0.74	0.438	30.599***
	의료서비스 만족도	0.70	0.458	0.76	0.426	54.487***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36	0.481	0.80	0.398	2634.465***
	호혜성 여부	0.13	0.340	0.73	0.443	4099.889***
	네트워크 빈도	1.98	1.715	4.88	1.754	84.900***
개인 특성	남자	0.56	0.496	0.19	0.392	1957.533***
	학력	0.83	0.378	0.04	0.197	12409.518***
	소득수준	2.87	1.148	1.36	0.730	−70.559***
	직업 있음	0.78	0.414	0.32	0.466	2358.478***
	수도권 거주	0.40	0.490	0.17	0.375	865.327***
	나이	27.26	4.162	76.65	6.715	547.152***

*p<0.1, **p<0.05, ***p<0.01

상기의 집단 간 차이와 청년 및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집단 내 청년과 노년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모두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과 자연환경 만족도가 중요하게 나타났고,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은 물리적 환경의 안전,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통적 영향요인인 안전 만족도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안전에서 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이(전희진, 2021)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 집단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성을 나타낸 물리적 환경 영향요인에서 청년 1인가구는 자연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 1인가구가 반지하, 원룸, 고시원 등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정은희·송나경, 2017; 이순미, 2018). 노년 1인가구는 대중교통 만족도와 의료서비스가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년의 신체적 노화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함으로 이동이나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이유진·김의준, 2015; 이지은·이경은, 2020).

둘째, 지역사회의 환경특성 중 사회적 환경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년 1인가구와 달리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환경의 신뢰 여부와 네트워크 빈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노년 1인가구가 은퇴 이후의 사회적 박탈감과 더불어 배우자의 상실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보인다(서경현, 2007; 최해경·김정은, 2018). 이는 직장이나 학업, 독립의 목적으로 형성되는 청년 1인가구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규범을 강화하여 사람들과의 상호 신뢰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노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가설

2를 지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사람들이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곤, 주거불안, 사회적 고립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위험과 영향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회구조적 요인을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9 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차이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다인가구,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노년가구에 비해 청년가구의 스트레스 위험이 높았으며, 그중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위험이 가장 컸다. 각 집단의 지역환경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인을 보면,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은 물리적 환경요인의 안전 만족도와 자연환경 만족도로 나타났고 청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은 물리적 환경요인의 안전, 자연환경, 대중교통 만족도, 사회적 환경의 신뢰 여부, 호혜성 여부 네트워크 빈도로 나타났다. 노년 1인가구와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물리적 환경의 자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청년집단에서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스트레스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인의 차이가 노년 집단간의 차이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년과 노년 1인가구는 스트레스 위험과 모든 관련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청년 1인가구는 물리적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 노년 1인가구는 물리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지역 특성의 안전과 자연환경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는 안전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사회적 환경의 신뢰 여부와 네트워크 빈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청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이,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지역 특성 중 사회적 환경요인이 청년 1인가구에 비해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환경요인을 포함하여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층 나아가 1인가구 집단의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1인가구 청년 및 노년 집단 별 지역 환경요인이 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연결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환경적 접근방식을 통해 가구형태별, 연령별 1인가구 집단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비록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는 안전, 자연환경,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외에도 여가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고, 변수 구성 시 자료의 한계로 직접적으로 물리적 환경수준을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비록 1인가구에서 빈곤, 주거불안을 겪는 비율이 높아 보편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나,

1인가구에 화려한 싱글을 즐기는 골드족도 포함된다(채병주·황선재, 2021).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를 구분하였기에 이러한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환경요인 간의 인과간계 양방향성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

1) 다인가구 모형에서 소득수준 변수는 다인가구 내 청년의 소득수준이 아닌 가구전체의 소득이므로, 다인가구 내 청년과 노년의 소득수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고 있어 1인당 소득의 파악이 어려워 〈부록7〉에서와 같이 다인 청년과 노년가구 모형에 가구수를 삽입하였고, 가구수가 없는 모형에서처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변수들 또한 가구수가 없는 모형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강은나·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4), 47-56.

강은택, 강정구·마강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강현욱·박경민, 201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1), 129-143.

강희경·김영미·이은주, 2009,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79-204.

고경봉, 박중규·김찬형,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9(4).

고용노동부, 2023. 고용노동지표.

김가원·황혜신, 2021, 노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김갑열·김윤옥, 2017, 주거환경의 안전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 217-231.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4(4), 1-28.

김동환, 2016, 1인 가구 특성이 주택입지 및 주택시설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2차 모형 및 상호작용 모형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4(4), 195-213.

김보경, 2017, 청년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김소연·서민숙·서영준, 2018, 1인가구원의 자살생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조사(2013, 2015) 자료를 이용.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489-498.

김아린, 2018, 1인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관 및 심리적 건강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

김영미, 2010,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6, 232-262.

김영숙, 2020, 1인 가구원의 정신건강증 진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상담 및 가상동반자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인문사회 21,11(5), 849-862.

김옥연·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7(2), 37-53.

김은경·박숙경, 2016, 우리나라 여성 1인가구와 다인가구 여성의 건강행태 및 질병이환율 비교: 2013 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3), 483-494.

김정은, 2019, 남녀 1인가구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7(1), 73-101.

김정호·김원태·윤용환, 2013, 도시지역의 녹지경관 조망이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4), 516-523.

김지선, 2020, 서울시 주거빈곤 청년 1인 가구의 건강 문제와 대응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지영·전희정, 2021, 1인가구의 신체활동 결정요인,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6(2), 49.

김진현, 2021, 청년 1인가구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83-289.

김재익, 201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이질성과 공간적 분포

특성, 주택연구, 21(3), 63-81.
김태은·양세정, 2018, 청년층의 부채상환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9(6), 105-133.
김현, 2000, 스트레스 index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과학학회지, 4(2), 57-66.
권혁철·김형용, 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4050 세대 1인 남성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267-290.
두미애, 2015, 성별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관련습관 및 비만과의 연관성: 제 5 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대한비만학회지, 24(3), 156-165.
문하늬·채철균·송나경, 2018,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9(2), 87-103.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2, 110-140.
박보영·권호장·하미나·범은애, 2016, 부부가구와 1인가구 노인의 정신건강 비교: 성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2), 195-205.
박수진·나주몽, 2015,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31-51.
박지혜·장영은, 2022, 1인가구 청년의 주관적 건강 영향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2857-2872.
변금선, 2021, 서울 청년의 주거실태와 정책 과제, 국토, 27-34.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213.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서경현, 2006,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33-147.
서경현, 2007, 노년기 한국인의 스트레스, 스트레스硏究, 15(4), 271-278.
서수균·백지영·정영숙, 2012, 노인의 스트레스 및 삶의 의미성과 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7-30.
서인균·이연실, 2014,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371-400.
성인지통계, 2022, 2022통계로 보는 1인가구.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311-339.
손애리·김태경·류은정·오경재, 안동현, 2010, 서울시 지역주민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 실태 및 스트레스,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1), 71-80.
손희주·남궁미, 2018, 가구 생애 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2016 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169-196.
송나경, 2020,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우울 영향, 인문사회 21, 11(4), 405-420.
신미아, 2019,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비교: 국민건강영영조사자료분석(2013, 2015, 2017), 한국웰니스학회지, 14(4), 11-23.
신미아, 2020, 성별에 따른 1인가구 성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분석(2017),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6), 847-859.
신미아, 2021, 가구유형별 성인의 행복감 비교: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2019),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77-284.
신상영, 2010,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45(4), 81-95.
신서우·민소영, 2023, 1인 노인가구 우울에 미치는 지역환경 영향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4, 75-114.
심종섭·박문수, 2021, 1인 가구 정책 수요와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24, 81-101.
안지연·이성은, 2014, 직업분류 및 고용분류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상, 의료기관 이용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409-420.
유민, 이의연, 전정호·이종민, 2019,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483-501.
이경영, 2019, 지역애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4), 1-20.
이동성·남형권·이훈, 2019, 개인 및 지역· 환경요인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4), 41-52.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이민아, 2021, 성별과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교류: 누가 더 취약한가?, 한국인구학, 44(2), 1-22.

이소영, 2022, 청년 1인가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 인문사회 21, 13(5), 1017-1031.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243-293.

이승훈·현명호, 2003, 회복환경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25-545.

이영균·최승인, 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51-180.

이유진·김의준, 2015,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65-87.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이재수·양재섭, 2013, 서울의 1인 가구 특성과 거주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향 연구, 국토계획, 48(3), 181-193.

이재영·박진희·임윤택, 2012, 도시특성에 따른 공공자전거 이용특성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계획, 47(3), 295-308.

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이재영·박진희, 2015, 버스이용환경이 이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전시를 사례로, 대한교통학회지, 33(6), 543-553.

이평숙, 이용미, 임지영, 황라일·박은영, 2004,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3), 477-484.

일요서울, 2023, 청년, '구직자' 아닌 '취포자' 시대로,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704

임유나·조윤민·이태진, 2019,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3), 348-379.

임은정, 2021,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 주택도시연구, 11(3), 79-101.

장임숙, 2020,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373-397.

전준형·박진아, 2020, 보행환경이 근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17 자료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5(3), 29-42.

전희진, 2021, 전라북도 1 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유진·이세규, 2015,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2), 75-94.

정은희·송나경, 2017,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2009-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4(5), 638-647.

정현·전희정, 2019,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도시설계, 20(1), 91-110.

정혜은, 2019, 1인 가구의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8(1), 1-10.

조미정·이명훈, 2015, 근린생활환경이 노후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토계획, 50(4), 23-47.

조미현·송재민, 2020, 서울 대도시권의 1인 가구 주거이동 및 유입지역 특성 분석: 직업과 주택 요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5(4), 70-84.

조은현·이동형, 2016, 노인들의 직업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6133-6137.

채병주·황선재, 2021,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최예나·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최희용·서은혜·전희정, 2020,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다수준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연구, 36(1), 69-88.

최해경·김정은, 2018,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의 노화 태도와 만성질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1), 275-293.

코시스, 2022, 1인가구비율.

통계청, 2021.「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하정화 · 김현희 · 박진아, 2014,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223.
한수정 · 전희정, 2018,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6.
한은경 · 이유미, 2014, 여성에게 범죄불안감을 일으키는 주거지내 야간 골목길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소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5(2), 117−134.
한창수 · 장보형, 이자연, 안지혜, 임재형 · 양재원, 2012, 노인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연구결과보고서, 1(1), 1−82.
황경란 · 박소영 · 박수선 · 조성희, 2022, 경기도 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GRI 연구논총, 24(2), 65−91.
황명주 · 장용언, 2017,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4(1), 113−136.
황종남 · 오종묵, 2020, 대도시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4), 143−155.
Bourdieu, P., 1985,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Press.
Choi, E. S., & Yun, S. N., 2004, A Study 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Femal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3(1), 59-69.
Cohen. L. E.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Sage publication.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rburn, J., 2004, Confronting the challenges in reconnecting urban planning and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4), 541-546.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2), 115-128.
Glass, T. A., & Balfour, J. L., 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Neighborhoods and health, 1, 303-34.
Jin Yinhua, & Jun Hee-jung,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6(3), 1-22.
Kennedy, D. P., & Adolphs, R., 2011, Stress and the city. Nature, 474(7352), 452-45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ederbogen, F., Kirsch, P., Haddad, L., Streit, F., Tost, H., Schuch, P., … & Meyer-Lindenberg, A., 2011, City living and urban upbringing affect neural social stress processing in humans, Nature, 474(7352), 498-501.
Lee, M. S., & Suh, K. S., 2016, Anaysis on Management about the Intergenerational Homeshare by Senior-Young Student- Focusing on 4 Districts in Seoul, Korea.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5(3), 90-101.
Van Orden, K., & Conwell, Y., 2011, Suicides in late life, Current psychiatry reports, 13, 234-241.
Wolff, H. G., 1953, Stress and disease.

게재신청 2023.08.25
심사일자 2024.01.12
게재확정 2024.01.12
주저자: 진인화, 교신저자: 전희정

[부록]

〈표 7〉 청년 다인가구 및 노년 다인가구의 스트레스 영향요인: 가구원수 포함 모형

구분	변수	청년 다인가구			노년 다인가구		
		B	S.E.	Exp(B)	B	S.E.	Exp(B)
물리적 환경	안전 만족도	−0.283***	0.036	0.754	−0.230***	0.043	0.795
	자연환경 만족도	−0.221***	0.035	0.802	−0.139	0.037	0.870
	대중교통 만족도	−0.173***	0.035	0.842	−0.046	0.034	0.955
	의료서비스 만족도	−0.049	0.036	0.952	−0.205***	0.035	0.814
사회적 환경	신뢰 여부	−0.284***	0.033	0.753	−0.354***	0.035	0.702
	호혜성 여부	−0.061	0.039	0.941	−0.037	0.035	0.964
	네트워크 빈도	−0.017*	0.009	0.983	−0.056***	0.007	0.945
개인 특성	남자	−0.280***	0.029	0.756	−0.035	0.024	0.966
	학력	−0.165***	0.036	0.9848	−0.480**	0.032	0.619
	소득수준	−0.060***	0.023	0.941	−0.231***	0.019	0.794
	직업 있음	0.241***	0.031	1.273	−0.030	0.025	0.970
	수도권 거주	0.101***	0.029	1.106	−0.024	0.030	0.977
	나이	0.029***	0.004	1.030	−0.002	0.002	0.998
	가구원수	−.0.024	0.016	0.976	0.040*	0.021	1.040
Nagelkerke R^2		0.049			0.031		
Hosmer & Lemeshow 검정x^2		0.050			0.082		
x^2		901.470***			950.562***		
N		25820			50897		

*p<0.1, **p<0.05, ***p<0.01